



김여울 기자  
오키나와 전후 캠프를 가다

# 광주 FC 아쉬운 뒷심... 스타군단 고베에 2-4 역전패

## 광주 FC

J리그 비셀 고베와 연습경기  
포돌스키·비아 등 정예멤버 출동  
나상호 공백 조직력 미완성  
김승규 "멋진 경기...광주 성적기대"

광주 FC가 '강적'을 상대로 전지훈련 중간 점검 시간을 가졌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전지훈련 중인 광주가 13일 킨 축구장에서 연습경기를 가졌다. 상대는 J리그의 '스타군단' 비셀 고베.

비셀 고베는 말 그대로 세계적인 축구 스타 다비드 비야, 루카스 포돌스키,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그리고 한국 국가대표 골키퍼 김승규를 보유한 '스타군단'이다.

덕분에 비가 오락가락하는 곳인 날씨에도 축구 스타들을 보기 위한 인파로 킨 축구장은 북적였다. 그라운드 분위기도 뜨거웠다. 연습경기였지만 고베는 정예 멤버를 투입해 광주를 상대했다. 포돌스키가 주장 완장을 차고 그라운드에 울랐고 비야도 선발로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골문을 연 쪽은 광주였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이시영의 크로스를 받은 펠리페가 고베의 골망을 출렁이게 하면서 골 세레모니를 했다. 이어 광주는 활발한 움직임으로 고베를 몰아붙이면서 분위기를 끌고 왔다.

진짜 경기를 방불케 하는 기싸움도 펼쳐졌다. 광주의 흐름으로 경기가 진행되면서 고베 선수들의 움직임이 거칠어졌다. 전반 종료로 앞두고는 기싸움이 몸싸움으로까지 전개됐다. 비야가 공을 다루던 중 팔꿈치에 얼굴을 맞았다면서 거칠게 항의를 했고, 선수들 사이에 몸싸움이 진행되면서 경기가 잠시 중단됐다.

파울을 얻어낸 비야는 프리킥 킥으로 나서 그대로 공을 집어넣으면서 1-1로 전반전이 마감됐다. 후반 시작과 함께 고베는 김승규를 골키퍼로 내세워 경기를 풀어갔다.

후반전 양상은 전반전과 달랐다. 상대의 거친 움직임에 페이스를 잃은 광주의 조직력이 흐트러지면서 고베의 공격에 쉽게 뚫렸다. 연달아 세 골을 허용하면서 점수는 1-4까지 벌어졌다.

후반 41분 이희균의 도움을 받은 두현석이 골대를 가르면서 1점을 추격했지만, 광주는 고질적인 '후반 집중력 부재'를 보이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또 이한도, 김태운 그리고 광주의 첫 외국인 수비수 아솔마토프 등 주축 선수들이 부상과 컨디션 난조로 뛰지 못한 부분도 아쉬웠다.

'외국인 선수'라는 과제도 남았다. 펠리페가 활발한 움직임으로 골을 기록했지만 나상호의 이적으로 생긴 공격 공백을 채울 외국인 선수들의 영입이 결정되지 않았다.

여기에 아솔마토프의 합류도 늦게 이뤄졌고, 광주의 기대주인 김정환과 신인 엄원상도 '김학범호'에서 훈련을 하느라 손발을 맞추지 못하면서



일본 오키나와에서 전지훈련 중인 광주가 13일 킨 축구장에서 J리그의 '스타군단' 비셀 고베와 연습경기를 가졌다.

/오키나와=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조직력'도 풀어야 한다.

박진섭 감독은 "선수들이 열심히 했는데 수비적인 부분에서 후반에 너무 쉽게 실점한 부분에서 아쉽다"며 "외국인 선수들이 아직 결점이 되지 않았는데 세 외국인 선수들이 들어오는 게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서 두 가지 트랙으로 준비를 하겠다. 부상 선수들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수비수들의 미흡한 부분을 맞춰 나갈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이날 광주를 상대한 김승규는 "광주가 자신감도 있고 어떤 축구를 해야 할 지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것 같았다. 후반에 무너지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 부분만 보완한다면 올 시즌 좋은 성적을 기대해도 될 것 같다"며 "큰 선수(펠리페)를 중심으로 크로스 공격패턴이 많았는데 정확성을 높이고 세컨볼을 잡는데 신경 써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승규는 자신의 새 시즌에 대해서는 "좋은 선수도 많이 영입했고, 올 시즌 기대도 크는데 잘 준비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멘탈싸움 뒤졌지만 좋은 패배... 자신감 생겼다”

### 광주 FC 주장 여름



광주 FC가 '패배'를 통해 쓴 보약을 먹었다.

광주는 13일 일본 오키나와 킨 축구장에서 열린 J리그 '스타 군단' 비셀 고베와의 연습경기에서 2-4패를 기록했다.

펠리페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역전패를 당했지만 광주 터줏대감 여름은 "좋은 패배"였다고 평가했다.

여름은 이날 김태운을 대신해 주장 완장을 차고 광주 대표 선수로 고베를 상대했다. 활발한 움직임으로 그라운드를 누비고 후반들을 이끈 여름은 "경기는 재미있었는데 마지막에 힘들어졌다"며 "점수차가 커서 거기에 대해 많이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역대급 연습 경기 상대를 만났지만 자신감도 넘쳤고, 전반전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여름은 "전반에는 강팀이라는 걸 전혀 못 느꼈다"며 "상대편 선수들이 유명한 선수들이 많은데

매너가 좋을 줄 알았는데 좋지 않았다. 거기에 우리 애들이 조금 흔들려서 같이 싸우다가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려서 실점한 것 같다"고 돌아봤다.

또 "지금까지 약팀하고 연습 경기가 잘돼서 문제점이 안 나왔는데, 오늘은 확인할 수 있었다. 좋은 경기 한 것 같다"며 "변화에 대해 선수들이 인식하고 대처하는 방법이 늦었다. 후반에 상대가 다른 전술을 들고 나왔는데 거기에 당황하면서 좋지 못했다"고 강팀과의 승부와 그리고 패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일본 친구들이 잘하는 것을 배울 건 배워야 한다. 우리 단점이 나왔다. 그걸 고쳐야 한다. 상대가 볼을 잘 돌리는 팀도 있고 톱볼을 돌리는 팀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에 맞춰서 우리가 시즌 준비를 잘해야 할 것 같다"며 패배를 통한 배움을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고교때와 차원 달라 어병병... 배짱있게 던질게요”

### KIA 타이거즈

'루키 트리오' 좌측우들 캠프  
장지수, 연습경기 설레는 첫 등판  
홍원빈, 흥 돋구는 분위기 맨  
김기훈, 라이브 피칭 관심 집중

'루키 트리오'의 좌측우들 스프링캠프가 숨가쁘게 흘러가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의 KIA 캠프단에는 최고점 절친 김주찬, 이병호를 필두로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김기훈, 장지수, 홍원빈 세 신인 투수도 있다.

캠프 출구 전 "기대된다. 선배들 연습하는 것을 지켜보고 싶다. 투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당찬 소감을 밝혔던 세 사람. 오키나와에서 다

시 만난 세 사람은 "선배들이 너무 잘 해주신다"면서 여전히 밝은 모습이다.

셋 중 가장 먼저 연습경기 마운드에 오른 이는 장지수다.

11일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경기에서 대기했지만 등판을 하지 못했던 장지수는 12일 주니치 드래곤스와의 경기를 통해 마침내 프로 첫 경기를 치를 수 있었다.

이날 관중석에서 유심히 '막내'의 피칭을 지켜보던 이민우는 "전날 (장)지수가 대기 투수였는데, 2회부터 몸을 풀고 있더라. 경기 나가고 싶으면서 열심히 몸을 풀었다"며 웃음을 터트렸다.

장지수는 "너무 던지고 싶었다. 올라갈 때는 안 떨렸는데 막상 올라가니까 많이 떨렸다. 다음에는 긴장 안 하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일지 매일 쓰고 있는데 경기가 어떻게 됐고 내가 무엇을 했어야 하는지, 다음 시합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를 적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캠프 와서 보니까 이곳에 잘하는 분들밖에 없다. 전문가들만 모인 느낌이다. 고등학교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면서도 "아직은 신인이다 보니까 서툰 것도 많고 시합에서도 어병병한데 자연스럽게 팀에 소화되고 싶다. 다음에는 떨지 말고 배짱 있게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홍원빈도 '신인다운 모습'으로 선배들을 웃게 했다.

지난 12일 주니치전에서 관람석에서 경기를 지켜본 홍원빈은 좋은 플레이가 나올 때마다 "우와!"라는 감탄사를 쏟아냈다.

"너도 프로야구 선수야"라면서 선배 문경찬을 웃게 한 홍원빈은 "지난해 경기하느라 비해서 프로야구 경기를 못 봤다. 이렇게 야구 보니까 신기하다. 훈련을 할 때도 신기하다. TV에서 보던 선배들이 같이 운동을 하고 있다"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가장 화제의 신인은 좌완 김기훈이다. 라이브



왼쪽부터 장지수, 홍원빈, 김기훈

피칭 때부터 선배들의 눈길을 끈 김기훈은 14일 프로 첫 연습경기를 앞두고 있다.

김기훈은 "선배들이 훈련 분위기를 너무 잘 만들어주셔서 힘든 부분은 없다. 공도 체계적으로 배우고 던지니까 재미있다. 피칭할 때 자신감도

생겼다"며 "지금 하체 중심 이동이 가장 신경 쓰고 있다.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한참 받겠다. 확실한 밸런스가 가장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중심 이동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